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38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29)	봉헌 (219)	성체 (502)	파견 (50)
---------	---------	----------	----------	---------

미사 전례 예절

- 봉헌 때 헌금을 내려 나가서 헌금함 앞에 이르기 한 두 사람 전에 제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예를 포함합니다. 봉헌함에 헌금을 던지듯 넣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다소곳이 정성스럽게 봉헌 합니다.
- 성찬 전례 중 사제는 거양(擧揚 :들어올림) 성체(聖體) 후와 거양 성혈(聖血) 후에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하는데, 사제가 성체와 성혈을 거양 후 내려놓으신 다음 사제가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할 때 거기에 맞춰 교우들도 함께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포함합니다.
- 미사 성체 중에 사제가 말로 바치는 부분은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고유 부분으로 교우들은 겹으로나 속으로 따라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성찬 전례 중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는 부분 ("너희는 모두.. 이는 내 몸이다. / 이는 내 피의 잔이니..")과 파견예식 때 사제가 강복을 주실 때 성호경을 따라하는 교우 분들이 있는데 강복은 하느님께서 사제를 통해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절대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16	이 그레이스	이 요한/황 스텔라	황 스텔파노
9/23	이 마틸다	이바오로/황 스텔라	황 스텔파노
9/30	유 요한	이 요한/황 스텔라	황 스텔파노
10/7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황 스텔라	황 스텔파노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Yard Sale : \$310

지난 주일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165	\$106	\$82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22	이 요한/ 이 마틸다	10/27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9/29	유 요한/ 유 마리아	11/3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10/6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1/10	김 마론/ 김 헬레나
10/13	홍 마르코/ 홍 아네스	11/17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0/20	김 요아킴/ 고 안나	11/24	황 가롤로/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10월 4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시

다음 임원회의는 10월 14일 오후 7시에 있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친교실 에서 모임

오늘부터 매주 미사 후 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정 방문시 기도 합니다

가정 방문시 기도 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 댁을 방문 할 때 “이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주모경, 등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추석 맞이 아침식사

오늘 미사 후 추석을 맞이하여 아침 식사가 있겠습니다.

이웃과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성기영 아가씨 | 작가, 작곡가-

살다 보면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스스로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의구심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개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인간의 거친 발들이 정신없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밟혀 죽을 위기였습니다. 저는 젓 먹던 힘을 다해 커다란 벽장 밑 공간으로 숨어들어갔습니다. 개미라는 존재의 무능함에 깊은 분노가 느껴졌으나,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벽장 밑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한숨 돌리고 나서 둘러보니, 이 바닥은 바깥보다 훨씬 시원한 데다가 꽤 불거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떨어져 어찌어찌 벽장 아래로 흘러들어 온 것 같은 잡동사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쓰고는 있지만 꽤 값나가는 보이는 과란 알 보석 반지, 한때는 반짝반짝 빛났을 법한 목걸이 펜던트, 잿빛 실을 매단 바늘, 바위처럼 생긴 흰 바둑알도 보였습니다. 저는 어슬렁어슬렁 그 바닥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글씨들이 적힌 커다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가까이 가 보니 종이도 글자들도 작은 개미인 제 눈에는 너무 커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글자들이 하나하나 종잇장에서 일어나더니,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문득 그게 아름다운 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가 날아가는 광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곳은 더 이상 벽장 밑이 아니었습니다. 탁 트인 파란 하늘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뒤, 무심코 방안을 둘러보니 벽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납작 엎드려 벽장 아래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언제 들어간 건지 알 수 없는 만 원짜리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 못 본 친구를 만나기라도 한 듯 반가웠습니다. 손을 뻗어 먼지를 뒤집어 쓴 그 배춧잎과 악수하니 빙긋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의 꿈을 통해 마음속의 지혜가 들려준 이야기.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들도 고민이 없겠습니까. 벽장 밑 개미로 사는 데에도 그만한 재미는 있는 법.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언지도 모른 채 갖지 못한 것만 탐하며 불행해져 갑니다. 날마다 한 손가락에 한 개씩, 감사할 일을 열 개만 꼽으며 살아간다면 행복할 거라던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네요.

세상을 향해 불평을 터뜨리기 전에 제 마음, 그리고 제 방이나 구석구석 즐기고 닦고 비워야겠습니다.

교리상식 총고해가 뭔가요?

전화나 이메일, 화상통화로도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데, 고해성사는 왜 불가능하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는 고백일 수는 있겠지만 성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해성사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 곧 하느님과 사람이 실제로 만나는 일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대리인인 사제를 만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해 자기 혼자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느님을 만나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고해성사의 핵심입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